

# Competent of Counsel

제이 E. 아담스

20211106 임현아

## I 기독교와 현대 정신의학

### 1. 프로이드 학파의 윤리

프로이드주의는 현대 미국 사회가 당연한 책임감을 붕괴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프로이드는 프랑스에서 찰코트의 밑에서 공부하며 그에게서 힌트를 얻어 의학적 모델 밑에 있는 인간의 어려운 문제에 관한 견해를 채택해서 보급시켰다. 정신건강협회의 홍보과장 헤리 밀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동정적인 이해와 친절을 베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이해와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개인적인 문제들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견해는 인간의 책임감을 없애버린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들은 사회에다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사회를 비난한다. 만일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문제들이 근본적인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질병의 문제라고 한다면 의약이나 치료 없이는 희망이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나쁜 행동이란 정신 병원에서는 있을 수 없다.

### 2. 프로이드 학파의 이론과 치료

프로이드는 사람의 단위를 세 가지로 보았다. 첫째, Id(성과 공격)이다. 이는 모든 인간이 지닌 기본적인 원시적 욕구와 충동 혹은 표현을 추구하는 욕구를 뜻한다. 둘째, 초자아(superego)이다. 이는 사람의 부모와 교회와 교사 등에 의해서 개인에게 사회화된 것이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정신병에 걸리는 것은 초자아가 과대 사회화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아(ego)이다. 자아는 중재자 혹은 의식 자체이다. Id와 초자아가 무책임의 수준에서 작용하고 있는 데 반해, 자아는 책임의 수준에서 작용하고 있다.

갈등은 Id가 초자아에 의해서 억압받을 때 나타나는데, 이때 사람은 ‘죄책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죄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닌 그릇된 것으로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치료는 그릇된 죄의식을 버림으로써 올바른 감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치료자는 Id가 초자아와 대항하게 함으로써 이것을 성취시킨다. 초자아를 약하게 하고 패배하게 함으로써 Id를 희생시키려는 욕구를 갖지 못하도록 막는다.

만약 프로이드의 견해가 옳다면 가장 부도덕한 사람들이나 가장 초도덕적인 사람들은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신 병원에 있는 사람과 항상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모두 거대한 도덕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다.

### 3. 프로이드의 원리와 우리의 위치

프로이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완전히 무신론적인 유대인’이며 ‘소망이 없는 이교도’라고 불렀다. 프로이드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없어서 버려야만 하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종교는 원시인으로 둘러싸인 위대하고 야생적인 우주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라고 가르쳤다. 양심(초자아)은 규범을 위반하면 대중들에게 심한 벌을 받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며 실제

로 그 규범은 신에게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종교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발생되었기에 인간이 나이가 들어 성장하면 더 이상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의 견해는 무책임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무책임을 고집하고 확장하도록 고무시켜왔다.

이 모든 것은 크리스찬에 관한 문제이다. 이 책은 인본주의적인 독단에 빠진 정신 의학자들에게 위탁하도록 권면하기보다는 고통 속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들과 크리스찬 직분자들이 자기의 특권과 책임을 다하라고 격려를 할 것이다. 이 책의 주제는 성경 안에서 적절하게 훈련을 받은 기독교 상담자는 정신의학이나 다른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들보다도 더욱 유능한 상담자라는 것이다.

## II 성령과 상담

### 1. 성령의 사역인 상담

상담은 성령의 사역이다. 유능한 상담자는 성령을 떠나서는 상담을 할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 상담자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상담활동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의 지시와 능력을 이용하지 못한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상담이란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과 성화시키시는 사역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성령을 무시하는 것은 인간의 부패를 부정하는 것이며 인간의 선천적인 선함을 긍정하는 것이다.

성령은 믿는 자의 성화(sanctification)를 포함한 모든 참된 퍼스낼리티(personality)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근원이다. 또한 진실로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보통 은혜라는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삶에 그의 특수한 사역으로 영향을 준다.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원리적인 전달 수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는 것과 성찬식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제 등을 사용하신다.

성령은 힘이나 법이 아니라 인격이시다. 그는 그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신다. 상담자와 피상담자는 모두 똑같이 성령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성령은 주로 상담자에게 주신 은사의 적절한 활동과 함께 역사하신다. 성령이 인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성령은 상담자가 그의 말씀 즉 성경을 사용하는 것을 기대하신다. 성령의 상담 사역은 보통 이 말씀의 봉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성경을 떠난 인도하심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여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성령이 크리스찬을 성화시키는 원리적인 수단으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상담도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방법론과 기술의 재능과 은사의 실행은 성령의 모든 사역과 일치되어야 한다.

## III <정신병>이라는 잘못된 명칭과 피상담자들의 위장

뇌의 손상, 종양, 유전인자, 선이나 화학적인 질병 등으로 인하여 두뇌에 영향을 주는 유기체적인 기능장애는 분명히 정신병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방대한 인간의 문제들이 병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신병으로 분류해왔다. 정신과 신체 양면의 질병은 내적이며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기는 순수하게 육체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심리적인 긴장이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병은 심리적 긴장의 원인인 병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신병’이란 무엇이 잘못된 병인가? 그들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 ‘정신병’은 유기체적으로 생긴 난점을 떠나서 사람이 참으로 해결되지 않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괴상한 행동은 다른 이탈된 행동을 함으로써 관심과 주의를 집중시키려는 위장이라고 해석해야만 한다.

기독교 상담자는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그러한 행동에서 찾아낸다. 현재의 행동을 주시하며 피상담자가 직면하고 있는 다른 문제들 뿐만 아니라 상담 상황을 조절하는 방법까지도 주의를 가지고 살펴본다. 어떤 사람이 그러한 회피하는 행동 유형을 갖고 있을 때 상담자들은 그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고치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함축된 원리를 제시하고 성경적인 대답으로 교훈을 주어야 한다. 그때 상담자는 단순히 정보만을 구해서는 안된다. 감정과 행동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

## IV 권면적 상담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진정한 크리스찬 상담의 중심이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며,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어 크리스찬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상담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상담하는 데 관해서 제시하신 명령이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 성경의 ‘권면(nouthesis)’과 ‘권면하다(noutheteo)’라는 말은, “권면적(nouthetic)”이라는 용어에서 나온 명사형과 동사형이다. 이러한 형들이 나오는 대부분 위 구절은 이를 ‘권면’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도록 귀납적으로 이끌고 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로마서 15장 14절에서 바울은 해당 단어를 사용하며 크리스찬들의 매일의 정규적인 활동으로서 권면적인 가르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권면적 활동은 목회자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실천해야 하는 사역이다. 바울은 선교사였으나, 일정 기간 머무는 곳마다 개인들의 신앙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진정한 목회 사역에 종사했다. 그는 권면적 활동을 목회 사역의 탁월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골1:28)

### 1. 권면적 상담의 세 가지 요소

#### 1) 항상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극복해야만 하는 장애물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만나는 사람의 삶에 어떤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권면이라는 말은 상담자와 피상담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어떤 반항을 하든지 안하든지 피상담자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면적 상담은, 이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반드시 인정을 하고 취급 해야 하는 어떤 잘못과 죄, 방해, 문제, 어려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권면적 상담의 근본적인 목적은 <효과적인 퍼스널리티(personality)와 행동의 변화>에 있다.

#### 2) 문제를 언어적인 수단에 의해서 권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권면이라는 개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라는 말이 부가적으로 첨가되어야 한다. 권면이라는 말 자체에는 공식적인 상담과 비공식적인 상담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가 있다. 권면적 상담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상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

에 이미 “왜”라고 하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무엇’이라는 질문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권면적 접촉의 두 번째 요소는 성경적인 원리들과 실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목적 안에서 인격적인 접촉과 상담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경적으로 정당한 언어적인 수단이 채택될 것이다.

### 3) 권면적인 활동의 배후에는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항상 말로 징계하는 것이 피상담자를 유익하게 한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권면은 사랑과 깊은 관심이라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며 피상담자들을 선하게 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언어적인 수단을 통하여 상담을 하고 징계하며 바로잡는 것이다.

## 2. 권면적 개입과 권면적 상담의 목적

권면적 상담은 반드시 가장 깊은 종류의 개입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피상담자에게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말라는 상담에 관한 가장 널리 알려진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립적인 태도는 없애버려야만 한다.

권면적 상담, 즉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이 경계는 하나님의 권위있는 명령이 부과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권위있는 경계는 믿는 자에게 사랑을 창조하는 성령의 방법이다. 성경적인 사랑의 정의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다. 사랑은 책임을 조건으로 하는 관계, 즉 하나님의 명령을 책임적으로 준수하는 것이다.

상담자들이 그들의 주의를 마음의 정화와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순수한 신앙을 가지려는 데에 기울이면 사랑은 꽃을 피울 것이다. 상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악의 유형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즉 변명하거나 책망을 면하려고 하는 대신 책임을 지고 비난을 당하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구할 것을 주장한다. 권면적 상담은 구원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충분한 권위를 반드시 이용한다는 사실에서 그 능력이 유래된 것이다.

## 3. 권면적 상담의 실패와 상담자의 자질

권면적 상담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권면적 상담자들이 피상담자들의 불만이나 변명에 지나치게 동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피상담자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 만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가장 친절한 입장은 피상담자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피상담자 자신이 자기의 죄를 바로 보도록 해주며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이다. 또한 상담자들은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거나, 곁에 나타난 문제들만 다루게 될 때 실패한다.

바울은 좋은 상담자들의 자질로서 선함과 지식을 들고 있다. 곧 다른 사람의 나쁜 행동을 지적해 주어서 그들이 자기의 나쁜 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도록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권면적 상담자들의 필수적인 자격으로는 지혜를 들 수 있다. 잠언 1:1-17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말로 지혜를 표현하고 있다. (1) 학문과 지식 (2) 일반인 원리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실제적인 기술 (3) 언약적 도덕적 교훈을 주는 행동 등이다. 즉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적인 진리를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 V 권면적 상담자인 목회자

### 1. 목회자의 직무

성경은 목사를 목회자라고 부른다. “목회자”라는 말은 “목자”를 의미한다. 목자란 늑대가 나타났을 때 고용인처럼 도망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람이다. 목자는 자기의 양을 사랑한다. 목자는 자기의 양떼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양들을 잘 알고 있으며 양들은 또한 그의 음성을 알고 다른 목자를 따르지 않는다(요한 복음 10장). 이러한 말씀은 목회자가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영혼을 소생시키고 휴식을 주며 마음과 정신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책임을 가리키고 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이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목사는 그의 목회적 책임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권면적인 상담을 해야 한다.

### 2. 복음전도와 상담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불신자를 상담할 때에도 복음을 전도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상담은 구원하는 것이다. 구원적인 상담은 근본적인 수술이다. 근본적인 수술로 인도하는 진단은 개방적이고 솔직하여 정직하게 해야하며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주(Savior)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요점을 말해 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권면적 상담의 적절한 개념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는 어떤 근본적인 의미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전제를 상담 속에 깊이 개입시켜야만 한다.

상담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권면적 상담자들은 죄와 죄의 결과에 관해서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죄악된 행동의 결과였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들은 성경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죄악된 생활 유형들이 어떻게 해서 불행을 초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한 단계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담은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이뤄져야 한다. 기도는 적절할 위급한 때에 드리고, 성경은 철저히 권위적 표준으로 사용된다.

불신자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옳지 못한 습관의 유형으로 변화시키게 해주고 생활의 어떤 국면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불신자와 신자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가 성공을 거두지 못할지라도 복음 전도와 함께 불신자들을 도울 수 있다.

### 4. 성화(Sanctification)와 상담(Counseling)

가장 충분한 의미에서 권면적 상담은 단순히 성화의 수단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성화의 필요 조건은 중생한 사람의 생활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다. 그 목적에 도달하는 것은 피상담자가 그의 이전의 죄악된 생활 유형에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피상담자는 옛 생활 유형을 가지고 있는 옛 사람을 벗어나고 새로운 성경적인 유형을 가진 새로운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성화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것 이상의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비록 습관의 유형이 변화되기는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킨다. 성령은 변화시키는 영이시다. 그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

격을 변화시키시는 능력과 힘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다. 성화하는 변화를 거절하는 것은 성령을 거절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다. 크리스찬은 더욱 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변화를 해야만 한다. 상담은 하나님께 반항하도록 성장한 옛 유형을 벗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성장하는 새로운 유형을 입도록 도와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도전이고 기회이며 의무이다.

## VI 권면적 상담과 로저스 학파의 상담

### 1. 로저스의 기본적 전제(무책임한 용납)

로저스 학파의 기본적인 전제는 완전히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적 사상, 즉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야 한다는 사상과 일치한다. 인간은 비지시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개척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상이다. 그러므로 비지시적 상담 혹은 반사적 상담은 상담자는 피상담자의 질문이 반사하게 하는 벽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피상담자가 상담자 앞에서 말을 하면 상담자는 피상담자의 말을 아주 빈틈없이 요점을 들어서 되풀이하면서 반사적으로 대답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피상담자는 자기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어서 점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이는 인간은 자율적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죄악된 인간의 신념을 확증하는 것이다. 인간으로 시작해 인간으로 끝나며, 인간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방법이다.

로저스에 의하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용납되어야만” 하며 훈계되어서는 안된다. 즉 “상담자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명백하게 해야만 한다.” 이러한 상담에는 권면적인 요소가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 진정한 책임은 용납의 관념에 의해 모르는 사이에 침해를 받았다.

책임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모든 생활 환경에 반응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반응 능력이다. 책임은 하나님이나 인간이 행하거나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경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이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 하신 그리스도를 열심히 본받는 능력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주셨다. 크리스찬은 “사랑하심을 입은 자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되었다. “사랑하심을 입은 자”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시려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지셨고 그들을 또한 용납해주셨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모든 용납 가운데서 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로저스 학파가 말하는 관용적인 용납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용납과는 전혀 유사점이 없다. 그들이 말하는 용납은 무책임한 용납이다.

### 2. 경청의 의미

성경은 로저스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하기 오래 전에 주의깊은 경청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이 경청은 로저스 학파의 방법이 아니다. 로저스 학파의 상담자들은 경청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은 중시하지 않는다. 오직 감정적인 발산을 주의할 뿐이며 그 정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거부한다. 로저스 자신은 피상담자 중심 상담과 문제 중심 상담의 차이점에 주의를 집중시키며, 자신의 견해는 문제 중심 상담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면적 상담자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을 위해서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피상담자의 기분과 기분과 문제점을 동시에 진지하게 다루는 것이다. 권면적인 상담자가 피상담자의 문제에 철저히 개입하는 것은 그가 피상담자를 돕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경청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관심있게 듣고 적절하게 대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로저스 학파는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하는 대신에 피상담자의 질문을 반복한다. 이것은 경청이 아니다. 그들의 입장은 도움과 충고와 가치 판단을 회피하는 것이며 개인적인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용하기를 회피하는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권면적 상담자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점보다는 피상담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찾는데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

### 3. 잠언은 지시적 상담을 하는 책이다.

잠언은 명확하게 정해진 삶의 원리, 즉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의 유형과 그 결과를 요약해 놓은 책이다. 잠언에 나온 상담은 지시적인 상담이다. 이 책은 권면적인 상담과 같이 언어적인 수단, 즉 교훈과 책망과 꾸짖음과 바로잡음과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적용시킴으로써 신적인 지혜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젊은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에 의존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훈계한다. 이러한 말씀들은 로저스의 견해를 반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훈계와 명령, 교훈, 말씀, 책망, 징계 바로잡음 등의 수단에 의해서 권위적인 형태로 위에서부터 피상담자에게 부과되는 외적인 근원은 젊은 사람(혹은 상담을 원하는 어떤 피상담자)에게 필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많은 말을 해서 피상담자를 권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피상담자가 상담자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도록 권면해야 한다. 피상담자는 상담과 책망과 명령과 교훈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피상담자가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곧 오늘날 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 4. 전제에서의 탈피

로저스 학파와 다른 프로이드 학파가 말하는 “전이(transference)”는 피상담자들이 자주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기에게서 상담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크리스찬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상담자들이 피상담자들에게 증오와 원한의 감정을 전이하도록 격려하거나 허락하는 것은 곧 피상담자들의 죄와 허물을 영속시키고 증가시키는 것을 격려하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권면적인 방법들은 죄악된 태도나 행동을 사랑의 꾸지람으로 대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 권면적인 상담자들은 전이를 격려하는 반사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대신에 그러한 전이를 끝마치게 하고 권면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전이의 사건 자체를 고찰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악된 감정을 용납하기보다는 오히려 회개(repentance)와 화해(reconciliation)를 가져오는 적절한 방법을 채택한다.

비성경적인 체계는 비성경적인 전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를 부정하면서 그 전제에서 나온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로저스 학파의 “용납(acceptance)”과 프로이드 학파의 “전이(transference)” 방법은 로저스 학파의 그릇된 자율적인 철학과 프로이드 학파가 근거하고 있는 무책임의 윤리 때문에 실패한다.

## **VII 죄의 고백**

### **1. 심신의 병**

성경은 모든 병이 즉각적인 죄나 죄악된 생활의 결과로 오는 것이라고는 결코 묘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죄와 병의 즉각적인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신약성경은 병이 죄 때문에 생긴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장로들이 권면적인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권면한다. 목회자들은 항상 병의 근원인 죄의 가능성을 조사해 보아야만 한다. 시편 51편, 38편, 32편은 모두 동일한 종류의 불안, 억압, 동일한 육체적 고통과 동일한 감정적인 내적 반응을 말하고 있다. 요약하면 다윗의 첫 번째 논점은 영혼과 육체의 고통의 원인이 된 숨은 죄에 관한 것이었다.

### **2.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라.**

첫째로 죄는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한다. 그러나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연습 또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일이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실연식 교육법(role-playing)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 교육법은 피상담자가 하고 있는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보여주며, 주의를 하지 않고 지나친 문제들이나 피상담자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제들도 나타내게 해준다.

### **3. 고백을 통한 행복**

고백은 범 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는 것과 같이 스스로를 볼 때 하는 것이다. 이는 성경적인 상담의 결정적인 요소이다. 크리스찬은 오직 죄를 고백함으로써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진실한 고백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알게됨으로 기쁨을 가져온다.

성경은 더욱 장수하며 더욱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는 마음의 평화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서 온다고 가르친다. 죄악된 양심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지만 선한 양심은 장수와 건강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육체의 건강은 영혼의 건강에서 온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행동과 건강 간의 밀접한 관계는 성경적인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용서의 즐거움을 얻은 자연스러운 반응은 자기의 경험을 나누어가지므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며 특히 근심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상담함으로써 돕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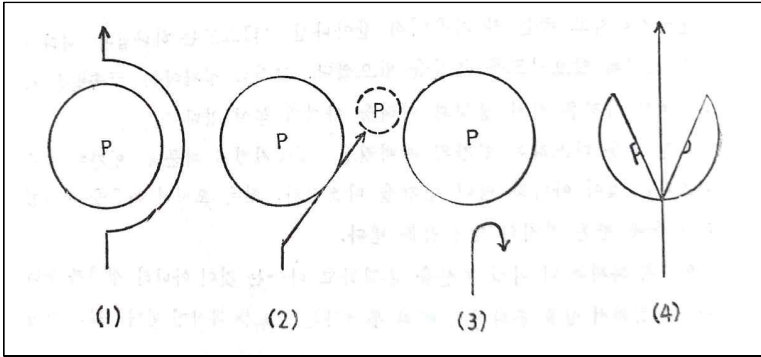
## **VIII 권면적인 문제의 해결**

### **1.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창 1:28)”는 명령을 하셨다. 하나님의 ‘주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환경에 위축되어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죄악의 상태에 방치해두는 것이다. 죄를 용납하고 채택하는 것이다. 이는 비성경적이다.

다음 그림은 문제에 직면하는 네 가지 방법을 묘사한 것이다.





첫째 그림은 사람이 문제를 우회하여 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둘째 그림은 문제의 가장 자리를 스쳐서 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그림은 사람이 문제에서 되돌아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넷째 그림은 문제를 뚫고 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첫째 그림은 “그 문제는 대수로운 일이 아니며 간단히 피해버릴 수 있다.” 라는 반응으로 표현된다. 둘째 그림은 “이 문제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원치 않은 것이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과정이 아니다.” 라는 말로 표현되며, 문제를 그릇되게 해결하도록 그 사람을 빛나가게 만든다. 세 번째 그림은 “그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없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네 번째 그림은 “그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라고 하는 크리스찬의 반응이다.

처음 세 개의 반응은 문제를 하나도 다루지 않고 남겨둠으로써, 사람이 문제에 의해 지배를 당한다. 반면 마지막 네 번째 반응은 문제를 진실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권면적 상담에서는 피상담자들이 그 문제들을 용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배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 2. 당신은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권면적인 상담에서 크리스찬 피상담자들에게 금지된 말 가운데 하나는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권면적 상담자들의 표어는 “당신은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다. 하나님은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내 경우는 독특하거나 특별하다’ 라는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굶주림과 잠을 이루지 못함과 오해받음과 미움 받고 낙망하고 고통 당하는 것 등과 같은 동일한 문제를 당하셨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고, “나의 경우는 예외이다” 라는 변명의 가능성이 제거된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전 1:13, 20)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한 두 번의 핑계를 댄 후에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경의 말씀이 자신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수긍한다. 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면 중요한 문제는 해결된 셈이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태도를 바꾸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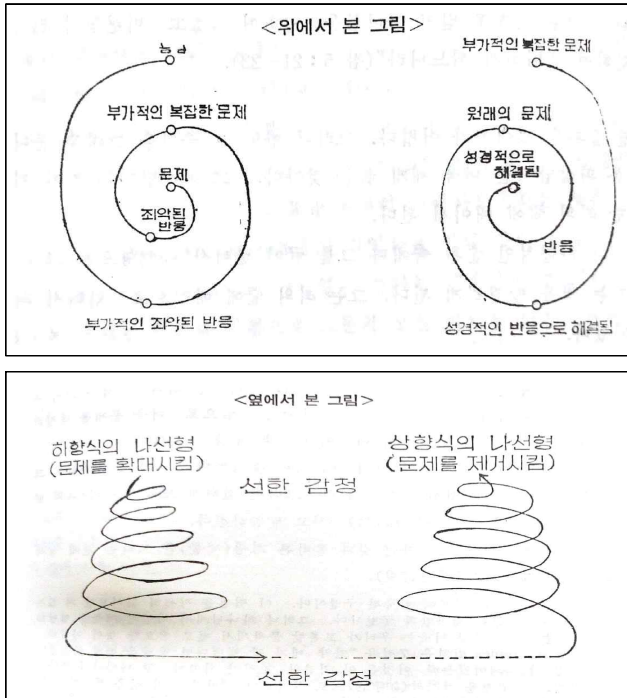
상담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한 가지는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신 복된 소식인 복음은 사실상 소망이 자라는 토양이며 모든 소망의 중심이다. 또한 그리스찬은 죄가 그를 불행하게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의 결과인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그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주

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결같이 그들의 죄에 대하여 깨우쳐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그리스도의 독특한 말씀은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다. 그 분은 죄를 과소평가하는 것과 거리가 멀게, 실패한 자들의 실패 원인은 죄 때문이었다고 죄 문제를 제기 하셨다. 피상담자들이 심각하게 자신의 죄를 취급하는 것이 상담의 첫째 단계이다.

### 3. 순환적인 운동

바울은 크리스찬의 새로운 삶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옛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과거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다. 그들은 죄에게 팔려, 죄의 욕망에 몸의 전부를 기꺼이 복종하는 종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의 새로운 주인에게 기쁘게 자신을 바쳐야만 한다. 죄의 하향식 순환은 한 문제에서부터 최악된 반응에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을 보다 의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상향식의 순환을 시작함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 4. 문제의 세 가지 차원

죄의 나선형에서는 문제들은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 문제의 세 가지 차원은 편의상 다음과 같이 부를 수 있다.

- 1) 문제의 제시 : 예를 들면 “나는 억압을 받고 있다”
- 2) 행위의 문제 : 예를 들면 “나는 훌륭한 어머니가 못되었다”
- 3) 필수 조건의 문제 : “나는 일이 잘 안되면 언제나 책임을 회피한다”

피상담자가 문제를 제시하였다면, 상담자는 가능한 빨리 행위의 문제를 취급해야 한다. 그 후, 행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피상담자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등을 질문하는 필수 조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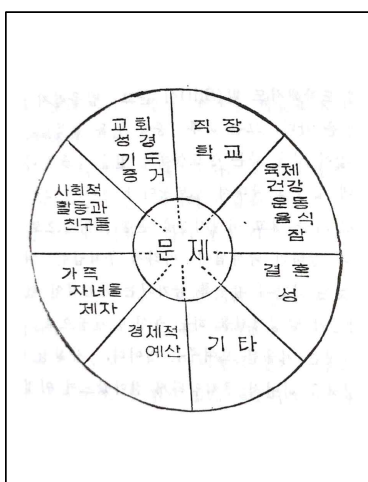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자주 피상담자들은 너무 성급하게 행위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만일 그들이 직접적인 압력이 제거되었다고 상담을 중단한다면 그들은 더욱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는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져다 줄 수 있는 급격한 인격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행위의 문제만을 취급하면 중요한 인격의 변화는 없이 행동의 변화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각 피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계층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피상담자들은 문제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배우게 되며 자신의 문제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며 성령의 조명 없이는 단순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된다.

### 5. 징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도록 징계하신다. 즉 그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바로 잡아 주시고 순결하게 하시며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기 위하여 징계를 하신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는 삶(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삶)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셨던 것과 같은 종류의 훈련이다.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배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실제적인 연단을 통해서만 순종을 배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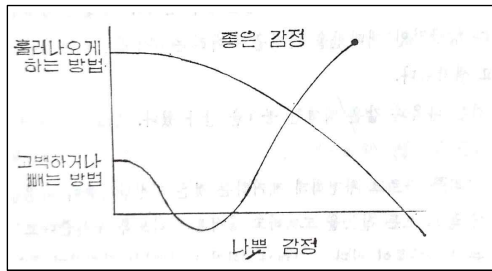
올바른 징계와 구조화된 삶의 결과는 의(義)이다.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중하라. 그렇게 되면 평강을 맛볼 수 있다. 이는 양심과 마음, 심령과 영혼의 평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담자들이 처음에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경적인 명령으로 그들을 취급하면, “당신이 매우 불친절하고 딱딱하게 대했으며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해 주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고 말한다. 그러나 상담의 시작부터 그들의 삶은 구조화되기 시작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맛보며 결국에는 “감사하다”고 말하게 된다. 구조화되고 훈계를 받은 삶은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되는 삶이다. 사랑의 생활을 하는 삶이 그 목적이다. 전체적 구조화(Total Structuring)는 모든 생활 영역에 관련된 문제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



### 6. 실망하는 것은 연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상담자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절하게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

하게 된다. 이러한 좌절로 인해서 과거의 모든 유형들을 산산히 찢어서 발밑에 던져버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서 있게 된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성경적 원리를 제공해주는 권면적인 기회를 주시며 그는 그 기회를 통렬해서 새로운 성경적인 유형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과거의 붕괴는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다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더 쉽고 빠르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성경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사실상 오래동안 고통스러워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한 빠르게 한번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낫다.



죄를 고백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인 죄의 고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를 미루라고 충고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권면적 상담은 또한 예방적 상담이다. 곱은 이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곱은 이를 빼고 새로운 이를 해놓고 이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 7. 모범을 통한 문제 해결

바울은 자주 어떻게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면에서 모범 혹은 좋은 본보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실연식 교육법(role play)은 또한 모범을 통해서 가르치는 성경적인 훈련의 원리를 확장시켜 주는 정확한 방법이다. 상담자들이 모범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은 유익한 성경적인 원리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본질적인 상담의 요소가 아니다. 교회는 반드시 크리스찬들이 모범과 권면과 명령을 거절할 때 징계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 같이 권하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따뜻함을 바울 사도가 가족 관계를 말하는 문맥에서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형제같이 권하라는 말은 형제 같이 권면적으로 상담하라는 말이다.

## IX 권면적 상담의 몇가지 원리

### 1. 피상담자가 스스로 훈련하도록 인도하라.

상담자는 피상담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주어야 한다. 이는 피상담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반드시 배워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발전을 위한 기록

피상담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의 일의 결과를 기록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피상담자의 생각을 기록하는 것은 그의 사상을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만들어준다. 피상담자들은 이를 통해 자기의 문제를 확인하고 더욱 좋은 해결책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다.

### 3. 한 번에 한가지씩 취급하라

피상담자는 자기의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므로 상담자는 바로 이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반드시 제시된 문제는 스쳐지나가고 그 제시된 문제 밑에 감추어진 진정한 문제를 조사해야만 한다. 제시된 문제에 대한 성공적인 해결은 피상담자에게 격려와 소망을 줌으로써 보다 중요한 새로운 사실을 빨리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제시된 문제들은 반드시 행위의 문제들을 토론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제시된 문제들을 토론하는 것은 보다 깊은 문제를 파헤치는 첫 번째 단계이다.

피상담자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기 전에는 모든 것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문제들은 한 번에 한가지씩 취급되어야 하지만 보통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다. 상담자가 먼저 작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주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다. 상담자들이 시작하면서부터 도움을 줄 때 피상담자들은 모든 문제들을 제시하는 데 몇 년 동안 실망하고 기다리지 않는다.

### 4. 팀 상담(Team Counseling)

팀을 짜서 상담하는 이유는 첫째, 성경에서 팀을 짜서 일을 하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바울의 사역,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 등은 상호 협력의 사상의 기초가 되고 있다. 둘째, 보다 풍부한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상담자들이 서로 모범이 되는 상담자를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 X 커뮤니케이션과 복합적인 상담

### 1. 현재의 문제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해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한다. 이는 회복된 순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전의 생활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반영하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의로운 존재였던 인간은 오히려 거짓의 아버지를 반영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신다. 이러한 모든 조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를 두어야만 한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표준과 일치해서 진심으로 말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결속되어 있으며 함께 일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함께 그리스도에게 봉사한다.

### 2. 분노와 원망

바울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분노 내도록 만든다. 몸이 죄악된 지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상담자들은 분노를 통풍시키는(ventialting) 것 보다는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님은 일이 일어난 그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 모든 문제는 제때에 취급해야만 한다. 마음 속에 원한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며, 그가 자기의 이웃에게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은 깨지고 만다.

마태복음 5장, 18장의 구절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준다. “믿는 자들 간에 의가 상하는 일이 생기면 누가 잘못했는지 간에 쌍방이 모두 화해를 하려고 먼저 노력해야 한다. 만일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해를 입혔다면 해를 당한 자에게 가야하며 심지어는 자기가 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해를 입힌 자에게 가야 한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권면적인 만남의 확실성을 확신하고 계신다. 먼저 만나는 것은 그 성질상 완전히 권면적이며 징계가 아니다. 그 목적은 화해를 함으로 형제를 얻는 데 있다. 권면적인 상담자들은 특히 “나를 용서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화해를 하려고 할 때 용서를 구하는 것과 “네, 용서해 드리지요.”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목적은 용서를 근거로 한 화해에 있는 것이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사랑의 개념은 언제든지 사랑은 죄를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할 때는 언제나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할 때는 권면적 만남(혹은 상담)은 필요가 없게 된다. 오직 사랑만이 참으로 덮어주며 그밖에 어떤 것도 참으로 덮어 주지는 못한다. 사랑은 일종의 잊어버림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만일 마음 속에 사랑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다. 사랑으로 권면적인 상담을 하는 자는 또한 죄를 덮으려고 노력하는 자다.

### 3. 복합적 상담(Multiple Counseling)

복합적인 상담은 즐겨 채택되고 있는 상담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행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이고 상호 인격적인 차원의 상담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었을 때, 복합적 상담은 이를 부활시키는 가장 좋은 조건을 제공해 준다. 또한 복합적 상담 그룹의 구성원들간의 말다툼은 상담자가 진실한 자료를 얻는데 도움을 준다. 또, 구성원의 감정이 분리되지 않게 해준다. 개별적 상담은 자주 다른 식구들에게 의심을 갖게 한다.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상대방을 자주 나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담자들도 피상담자들과 관계된 사람들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상담은 협력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중대한 공동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권면적 상담자들은 복합적인 상담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피상담자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권면적 상담자들은 성공을 하고 있다.

## XI 의의

### 1. 현대 상담학에의 공헌

지금까지의 상담이론은 고전적 상담이론, 지시적 상담이론, 로저스 학파의 비지시적 상담이론, 이 두 이론을 절충하는 상담이론, 행동주의학파의 행동수정이론 등으로 크게 구분되었으나 아담스를 통해서 성경적 상담이론인 권면적 상담이론을 정립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통설

을 깨고 개혁주의 입장에서 상담학을 정립한 것이다.

아담스는 성경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성경적 상담이란 ① 성경에서 그 동기를 찾으며 ② 성경을 그 전제 조건으로 하며 ③ 성경의 목표를 뼈대로 삼아 ④ 성경의 모델로 주어지고 명령된 원리와 실천에 따라 조직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성경만이 유일한 신적 권위를 가진 것으로 믿고, 이를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으로 적용시키며, 상담자의 유일한 교과서임을 강조한다. 아담스의 상담 이론은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 근거로 삼지 않고 성경의 원리를 상담의 원리로 도입해서 그 영혼의 문제를 치료하려는 방법론이다. 이러한 아담스의 이론은 성경중심 사상과 성령의 내적 조명을 상담의 기본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 2. 현대 목회학에의 공헌.

아담스의 상담이론은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고, 실제 목회에서 <권면적 상담자로서의 목회자>임을 강조한다. 이것은 목회자가 상담자로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적용하여 피상담자의 문제를 권면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스의 이론은 성공적인 목회사역을 위해서 매우 유익하게 활용되어야 할 이론이다.

## 3. 성경신학에의 공헌

아담스의 상담이론은 성경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므로 신앙과 생활의 원리로서 바르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헌에는 성경 신학적 배경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함께 성경 신학을 바탕으로 한 실천 신학을 정립하는 데 협력과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성경 신학을 바탕으로 한 상담방법의 개발에 촉매적 역할을 하므로 다른 연구자들의 계속적 연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